

고효율 전동기 지원자금 상향

고효율 전동기를 설치할 때 지원되고 있는 정부자금이 절전용량 1kW당 19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고효율 전동기를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4만원/kW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고효율 전동기 보급을 늘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원계획을 이번 주 안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절전용량 1kW당 16만7000원씩 지원되던 고효율 전동기의 설치장려금은 3만1000원 오른 19만8000원/kW로 올랐다. 또 대리점 등 관련 판매업체와 세트메이커에 대해선 절전용량 1kW당 4만원이 처음 지급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이에 대해 비싼 가격으로 인해 부진을 면치 못했던 고효율 전동기 보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수요관리처 장승찬 박사는 “고효율 전동기 보급장려금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반 제품과의 가격차이가 사실상 없어졌다”고 말했다.

고효율 유도전동기(규격 KS C 4202)란 국내 대부분의 사업장에 설치된 표준전동기보다 손실을 20~30% 감소시켜 효율이 평균 4% 정도 높은 제품으로 등급이 높고 두께를 최소화한 철심을 사용, 수전설비 규모를 줄이고 전력소비량을 감소시킨 게 특징이다. 전동기가 작동했을 때 발생하는 온도를 가급적 낮췄기 때문에 권선의 절연수명을 연장시켰다는 장점도 있다.

또 팬을 내열성과 내식성이 우수한 재료로 제작하는 등 냉각공기의 흐름을 최적화해 소음을 표준 전동기에 비해 약 3~8dB 낮췄다.

중소 외국전문인력 도입

전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외국의 전문인력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항공료 및 체재비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유채)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기, 전자, 정보통신, 원자력 등 8개 분야의 전문설계 및 공정기술 전문지식을 갖춘 러시아 인도 외국인력의 도입을 지원하는 '외국전문인력도입 지원사업' 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기업은 정보통신(IT분야), 전기·전자, 기계공학, 소재분야, 생명공학, 화학 및 화공기술, 에너지 및 자원분야, 원자력분야의 제조기업(정보통신기업 포함)으로 외국전문인력 도입을 희망하는 2003년 1월 1일 이전 설립된 중소기업이다.

지원 내용은 외국 전문기술자의 왕복항공료 전액, 6개월간의 외국인력 체재비 총 780만원(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인터넷관련 전문인력, 시스템엔지니어 등의 경우 총 480만원)이며, 수도권 외 지방소재기업의 경우 우대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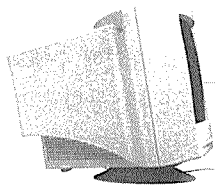
또한 자체적으로 외국인력의 해외 현지 발굴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 현지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발굴기관을 통해 인력을 발굴할 경우에는 제반 수수료를 지원한다. 외국 전문인력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최소 6개월 이상 활용해야 하며, 활용 인원은 2명까지다. 외국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은 학사학위 이상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이며, 일반 제조업의 경우 고졸 이상자로서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도 포함된다.

산업표준화 민간중심의 표준화정책으로 전환

- 산업자원부는 민간부문의 표준화역량 구축을 위하여 금년부터『민간표준 활성화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음
- 우리나라는 1961년 산업표준화법 제정이래 국가가 표준(KS)을 주도적으로 제정하고 기업은 이를 수용하는 전략으로 일관해 왔음
 - 이는 ISO, IEC, JIS등의 선진표준을 참고로 국가규격(KS)을 제정하고, 기업은 이를 따라오도록 하는 전략으로서 경제개발 초기단계에서는 타당한 방법이었으나
 -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한 지금은 적합치 않은 전략임
- 표준을 둘러싼 환경의 급변으로 표준의 역할이 '생산비 절감을 위한 규격생산의 수단' 이라는 종래의 개념에서 '시장지배의 수단' 이란 적극적 개념으로 변모하고 있음.
 - 특히 수량제한, 관세등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이 사라진 지금 표준이 TBT(기술적 무역장

벽)의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면서 표준은 국제무역의 논의에서 중요한 과제로 취급되기에 이르렀음

-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표준의 선진국인 유럽은 물론이고 후발 주자인 미국과 일본등 경제 강국들도 자국의 표준화전략을 수정·재정립시켜 나가고 있음
- 반면에 이미 경제규모와 기술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앞으로는 G7등의 선진국가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할 우리나라의 산업표준화 전략은 아직도 과거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전략의 변화가 시급한 실정임
- 산업표준화 전략은 기존의 '국제표준 → 국가표준 → 기업수용' 방식에서 앞으로는 우리의 산업계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국가표준 내지 국제표준으로 제정해 갈 수 있는 소위 상향식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진흥회 Homepage 이용안내

<http://www.koema.or.kr>